진정한 환경관리는 확고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편집부

"돌이켜 보면 9년이라는 고행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라 생각하고 불모의 환경분야에 꿈과 낭만을 갖고 뛰어들었지만, 환경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월만 보낸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리 저리 뛰면서 정보를 얻고 배워가면서 경험을 쌓아갔지요.

그야말로 無에서 有를 창조한다는 자세로, 피나는 자구책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로 열과 성의를 다했다고나 할까요 …"

동서산업(주) 진주공장 관리부 업무과의 李甲出환경관리인은 관리인경력 9년의 세월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환경관리의 파수꾼으로서의 행로를 고행의 길로 비유했다. 하지만 그 길은 곧 도약의 길을 전제로 함을 잊지 않는다.

李관리인이 몸담고 있는 곳은 동서산업(주), 현대그룹계열회사인 본사는 건축용자재인 타일을 만드는 회사다.(대기2종, 수질5종규모)

그는 출근하자마자 현장을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날씨에 상관없이 점검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야 적성이 풀릴 정도로 몸에 밴 일과다. 李관리인은 생산부서와의 사전유대관계를 중시, 각 공정마다 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 문제점을 찾아낸다. 공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생산공정부분의 근로자들과 환경오염의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루도 제 자신과의 싸움을 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론 기억조차하고 싶지않은 힘든날도 있었죠. 사직서를 최후의 카드로 제시해 난관을 해결했던 기억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한 실력이나마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다는 李관리인은 지난 '86년(환경분야)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을 받고 상사로부터 음지에서 일한 보람과 노력을 인정받았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로 완벽한 환경보전을 할 수 없죠.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성실성, 근면성,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 스스로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일에 파묻혀야 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터득한 그의 환경관, 직업의식이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李관리인은 대외적으로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다. 지난 '85년, 86년엔 부산·경남협의회의 진주지역회장(협의회 기획이사), 지금은 경남협의회 부회장직을 맡아 기술정보제공과 친목도모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애로사항도 상담해 주고 있다.

회장을 맡고 있던 '86년도에 부산·경남협의회 주최 제1회 체육대회때 진주지역관리인들의 단합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일, 또 그 해 박운석관리인을 돕기위해 즉석 모금을 해 박관리인석방에 일익을 다했던 것 등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한다.

"양벌규정만큼은 폐지되어 환경관리인들이 정말 안정된 직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할 줄 압니다.

관리인의 생명이 단명에 그쳐 이직율이 많은 것, 법적인 신분보장이 전혀 없는 것, 모두가 가슴 아픕니다."

그는 최근의 페놀오염사건을 기업윤리와 일관성없는 환경행정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본다.

"이젠 기업이나 경영자 모두가 인식을 전환해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해 근무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의 기술을 첨예화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장기적 안목에서,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지도계몽을 펼쳐야 하고요."

또 다른 대구 페놀오염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그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다. 무슨일이든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살아가고 싶어한다.

▲지난 '85년 부산·경남협의회 체육대회 입장때의 한장면.

▲해인사 뜨락에서 아내, 딸아이와 함께.

기약없고, 험난한 행로지만 전국의 환경관리인 모두의 힘을 모아 진짜 한국의 환경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됩시다!

산수좋은 곳에서 태어나 오늘날까지 환경정화에 전념해온 그는 수석과 분재에도 조예가 깊다. 체력관리를 위해 산행도 즐겨하는 그는 최근엔 야생식물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기도. 태권도나 영어회화 실력도 수준급.

"정부도 이젠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환경초년생들은 문제점이 없는 기업보단 괴롭더라도 열악한 기업에서 업무를 배우는 길이 환경업무의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기약없고, 험난한 행로지만 전국의 환경관리인 모두의 힘을 모아 진짜 한국의 환경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됩시다!"